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y

김정희·정다운*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아동상담보육학과·대구산업정보대학 아동미술보육과

Kim, Jung Hee · Chung, Dawn*

Dept. of Child-Care Counselling & Education,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Dept. of Child Arts & Child-Care Education, Daegu Polytechnic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ies. It was performed for 24 sessions with Lee Hyeon-Jin's(2006) and Shin Ji-Hye and Kim Gui-Bok's(2009)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Park Mi-Ran's self-esteem questionnaire(2007) and Kim Taehee's peer-relationship questionnaire(2005). The subjects are 26 elementary students in low-income and single parent family who are in the 2, 3, and 4 grade and use A-regional children center and B-regional children center which are located in Gyeongbuk province. Means, standard deviations,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Firstly, the change in self-esteem of both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is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their taking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enhancements in self-esteem of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a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enhancements in self-esteem of control group. Secondly, peer-relationships in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o not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aking group art therapy program. Thus, the program of group art therapy is thought to be effective therapy improving the self-esteem of child i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Keywords: group art therapy progra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self-esteem, peer relationship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가 되면서 증가하는 부모의 이혼이나 부재, 실직, 경제적인 빈곤 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중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동

의 경우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집을 비우게 되어 부적절하고 취약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고, 고된 경제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지지와 충분한 지도 및 역할모델을 제공할 여유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김효지, 2010). 김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아동을 특히 정서적으로 방임상태에 노출시키는 정도가 커서 아동과의 대화시간을

* Corresponding author: Chung, Dawn
Tel: 053-749-7343
Email: dawnchung@hanmail.net

거의 가지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칭찬 및 애정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며, 또한 아동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동과의 약속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많은 등의 이유로 아동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받으며 방임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욕구의 조절과 타협을 배우지 못해 사회적 관계에 놓인 또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알고 이를 타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해 줄 필요가 있다(이수정, 2007).

아동기는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학교와 사회,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학업,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하는 시기로 이 가운데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사회성이 형성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한 개인으로 느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선영, 2010; Richardson, & Rayder, 1987). 아동의 성격이나, 행동, 적응력,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동안의 가족관계에서 기초가 형성되며, 학교 생활에서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다(이인자, 2007; Walker, 1991).

아동기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칙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화가 촉진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조은정, 2011). 또래관계는 연령과 신분이 서로 비슷하며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같은 또래끼리의 모임이라고 정의되며, 연령, 흥미, 신분, 성이 비슷한 집단으로 우리라는 의식과 감정이 있고 그들만의 규칙과 조직이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아동의 집합이라 볼 수 있다(임선영, 2010; Wasserman, 1988). 더불어 또래관계는 또래집단 구성원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수용과 인정을 받으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호간의 역동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또래관계는 또래끼리의 모임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며,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친구들이 내 의견이나 생각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신뢰감과 존중감 등의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아동기의 원만한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에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인성발달

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김효지, 2010). 반면에 아동기의 또래관계에 있어 소외나 배척을 당하면 이후 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성격과 인간관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부모의 양육방법과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경, 2008). 가정환경으로 인해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불안이나 분노,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도 위축감을 보인다(강윤정, 1999; 이지혜, 2003). 즉 빈곤으로 파생되는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어주경, 1998).

한편 부모의 사별, 이혼, 격리 등을 경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양쪽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을 지니거나 적절한 인성발달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가 쉽다(조은정, 2011). 그래서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또래집단 속에서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어 또래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금란, 2003).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형성된 편부나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전에 사용하였던 편부모가족은 결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말의 ‘한’의 ‘하나로도 온전하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한부모가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 한부모가족과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아동이 양부모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 인해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김태준, 1992),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열등감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하였다(박정옥, 2003). 또한 이혼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양강순, 2009; 홍순혜, 2004). 자아존중감은 초기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때,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있고, 가족의 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의 영향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한선화, 1997). 한부모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부정적인 성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아동기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요구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어 또래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정계숙, 2008; 조금란, 2003). 이처럼 아동기에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져 사회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는 그들이 학교생활에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전시켜 줄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인성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치료적인 개입을 통해 또래관계의 증진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가도록 돕기 위해 미술치료(김효지, 2010; 이경은, 2005; 이근매, 2004), 음악치료(문지연, 2005), 놀이치료(조은정, 2011), 독서치료(이수정, 2007), 심리극치료(이종문, 1999), 원예치료(송도영, 2008)와 같은 다양한 심리치료적 접근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중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미술작품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 감정을 표출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해주며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현실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곽효정, 2002). Rubin(2005)은 미술치료의 주목적은 감정의 표현, 승화, 자신감의 향상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ramer(1993)는 아동미술치료에서 아동은 공격성, 불안, 억제된 감정 등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소망이나 판타지 형태로 분출하여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극복하여 승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관련된다. 또한 미술치료는 개인의 문제행동에 따라 교정의 목적으로, 역기능적인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책으로, 혹은 개인과 집단의 자아실현, 자긍심 향상 등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Malchiodi, 2010).

특히 미술활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집단구성원의 자아체계와 정서적인 특성을 강화시키고 사회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협동 작업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 내면의 어려움을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개인치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집단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의 행동 중 긍정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감정의 정화작용을 할 수 있다(이정숙, 전숙영, 2001).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기술을 배우는데 집단치료가 유용할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4).

최근 미술과 관련된 집단치료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박인숙(2006)은 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유경순(2008)은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에서 놀이를 통한 자아개념활동이 아동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김효지, 2010; 남현우, 이지현, 1999; 지규남, 2002).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 변화를 분석한 이경은(2005)의 연구에서는 15회의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기수용과 함께 상대방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또래관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경남(2008)은 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4회기를 진행한 소조활동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과정에서 점토매체에서 오는 안정감과 협동작업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가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이현진, 2006; 최신현, 2009; 홍유희, 2008). 이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효과성의 의미는 아동이 집단경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게 되며, 또래와의 대화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학습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결과를 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며 또래관계 형성을 원만히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인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방과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의 가정이나 학교환경은 자아존중감이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교육을 통해 이용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일은 아동이 또래와의 우정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발달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유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밝혀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빈곤한 환경가운데 한부모가족 내의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외감, 고립감을 경험하기 쉽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마다 본 프로그램을 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경상북도 내 저소득층 지역에 소재한 A지역아동센터와 B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부모의 동의를 받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 2학년 8명, 3학년 7명, 4학년 11명으로 총 26명이다. 집단미술치료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령차에 따른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6)

변 인	실험집단(n=13)		통제집단(n=13)	
		빈도(%)		빈도(%)
성별	남	6(46.2)	8(61.5)	
	여	7(53.8)	5(38.5)	
학년	2학년	4(30.8)	4(30.8)	
	3학년	6(46.2)	1(7.7)	
	4학년	3(23.0)	8(61.5)	
	외동아	0(0)	1(7.7)	
형제수	2	1(7.7)	1(7.7)	
	3	7(53.8)	11(84.6)	
	4 이상	5(38.5)	0(0)	

협력과 리더십, 양보심, 형제애 등을 경험하는데 있어 단일연령보다는 혼합연령집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본 연구대상 집단을 혼합연령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관한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사에서 유의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중 A지역아동센터 13명의 아동을 실험집단으로, B지역아동센터 13명의 아동을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2,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의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설계는 <표 2>에서와 같이 '이질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이다.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 전귀연(1993)이 제작한 것을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박미란(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체 32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평가이며 아동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이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가에 대한 평가적 태도이며,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학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유능감을 나타낸다. 이 중 문항3, 문항7, 문항15, 문항29의 경우 원도구에서 사용된 '부모님'의 용어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상 '엄마 또는 아빠(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2) 또래관계 검사

또래관계 검사는 홍옥순(1984)이 개발하고 김태희(2005)가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는 전체 4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신뢰감은 학급의 또래아동을 믿고 있는지 않은지의 심리적 경향을 의미하고, 존중감은 학급의 또래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지 멸시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또래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4. 연구절차

1) 사전검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1년 4월 15일에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설문지를 통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소개를 하였다.

2)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2011년 4월 18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주 2회 60분씩 총 24회를 실시하였다. 진행은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소유한 본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였으며, 미술치료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보조교사 1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감소와 또래관계,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이현진(2006)과 신지혜, 김귀복(2009), 정익현(2001)의 프로그램이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관계형성 단계, 자기-타인 인식 단계, 문제해결-또래관계를 위한 단계, 종결단계 등의 순서로 4단계로 구조화되었으며, 총 24회기로 회기당 6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형성단계(1-4회기)

이 단계는 연구자와 또래간의 친밀감, 협동심과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회기별로 도입과 전개, 마무리 활동으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자기-타인 인식 단계(5-13회기)

이 단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단계이다. 더불어 또래들이 함께 흥미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 문제해결-또래관계를 위한 단계(14-21회기)

이 단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래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전개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조절하기에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이질 통제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실험집단	O_1	X	O_2
통제집단	O_3		O_4

O_1, O_3 : 사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또래관계 검사)

O_2, O_4 :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또래관계 검사)

X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표 3〉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일반적 자아존중감	1. 5. 8. 13. 17. 21	6	.640
사회적 자아존중감	2. 6. 9. 12. 14. 18. 22. 25. 28. 31	10	.806
가정적 자아존중감	3. 7. 10. 15. 19. 23. 26. 29. 32	9	.848
학업적 자아존중감	4*. 11*. 16*. 20*. 24*. 27*. 30*	7	.684
전 체		32	.912

*는 역채점 문항임

〈표 4〉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또래관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신뢰감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20	.871
존중감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20	.782
전 체		40	.816

*는 역채점 문항임

<표 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단계	회기	주 제	내 용	적용기법
사전검사		· 자아존중감 검사 · 또래관계 검사		
관계형성 단계	1	별칭짓기	그림을 통하여 자신소개하기	그리기
	2	사포조각	여러 가지 사포에 그려진 그림에 연상하여 그리고 다함께 맞춰보고 이야기 나누기	사포그림
	3	난화	4B연필로 난화를 하고 숨은 그림을 찾아내어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이야기나누기	난화
	4	난화이야기	난화를 통하여 찾아낸 숨은 그림으로 이야기 꾸민 후 나누기	난화이야기 만들기
자기-타인 인식 단계	5	가족이야기	가족을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가족화
	6	학교생활화	학교생활과 반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그리기
	7	나와 친구의 이름꾸미기	내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꾸미고 이야기 나누기	플라쥬
	8	가장 슬펐던 순간. 마음이 아팠던 순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신문지를 찢어 가운데로 모은 후 날리면서 놀다가 다시 모아 기다란 끈을 만든 후 줄다리기 후 이야기 나누기	종이 찢어 표현하기
	9	밀가루 반죽	밀가루에 좋아하는 색을 넣어 반죽하고 원하는 것 만들고 이야기나누기	밀가루작업
	10	동물가족화	가족을 닮은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그리기
	11	내가 살고 싶은 집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의논하여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고 꾸민 후 이야기 나누기	집단 꾸미기
	12	도자기 만들기	조별로 의논하여 도자기를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도자기 만들기
문제해결 -또래관계를 위한 단계	13	풍경구성법	4B연필을 이용하여 그린 후 돌아가며 색칠하고 이야기 나누기	그리기
	14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찰흙을 이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만들고 서로 색칠해 주고 이야기 나누기	흙작업
	15	빈 통 꾸미기	빈 요구르트통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여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집단 꾸미기
	16	만다라 그리기	다양한 만다라 문양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리고 색칠하기	만다라
	17	비밀상자	자신의 비밀상자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자신에게 바라는 소망과 바람 등을 적기	플라쥬
	18	손, 발바닥 본뜨기	손과 발을 본떠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이야기 나누기	신체본뜨기
	19	내가 만들고 싶은 것	칼라믹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밀가루작업
	20	주고, 받고 싶은 선물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리거나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그리기, 플라쥬
종결단계	21	곡물 플라쥬	서로 의논하여 여러 가지 곡물을 이용하여 꾸미고 이야기 나누기	플라쥬
	22	우리 집 만들기	빈 박스를 이용하여 서로 의논한 뒤에 집을 완성하고 이야기 나누기	집단 만들기
	23	소원이 자라는 나무	전지에 나무 그림을 그리고 각자의 소원이 적힌 티슈를 문쳐 붙인 후 여러 가지 색이 든 분무기로 나무에 물을 준 후 이야기 나누기	꾸미기. 물감뿌리기
	24	전시하기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전시하기
사후검사		· 자아존중감 검사 · 또래관계 검사		

(4) 종결단계(22-24)

이 단계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인식하며 협동성과 자신

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3) 사후검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한 사후검사는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인 2011년 7월 11일에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처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로 설계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과 사후 향상도 검증에서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동일집단의 전-후 차이검증은 Paired *t*-test에 의해 비교·분석되었다. 전체적인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 하위 4개 영역 및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수준

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의 경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t=4.574, p<.01$), 사전 평균점수는 3.290($SD=.531$)이며, 사후 평균점수는 3.747($SD=.608$)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다. 자아존중감 하위 4개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 자아존중감 ($t=-8.062, p<.001$), 사회적 자아존중감($t=-3.046, p<.01$), 가정적 자아존중감 ($t=4.170, p<.01$), 학업적 자아존중감 ($t=2.20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즉,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으나,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또래관계 하위 2개

<표 6>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

(N=26)

변인	실험집단(n=13)		통제집단(n=13)		t
	M	SD	M	SD	
일반적 자아존중감	3.307	.669	3.589	.737	-1.021
사회적 자아존중감	3.092	.758	3.161	.729	-.237
가정적 자아존중감	3.632	.691	3.666	.987	-.102
학업적 자아존중감	3.120	.483	3.033	.583	.418
전 체	3.290	.531	3.355	.605	-.290

영역 및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또래관계는 차이가 없는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또래관계 하위영역인 신뢰감과 존중감 및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나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나 또래관계는 사전과 사후 사이에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 비교

(N=26)

변인	실험집단(n=13)				t	통제집단(n=13)				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일반적 자아존중감	3.307	.669	4.141	.741	-8.062***	3.589	.737	3.564	.708	.617
사회적 자아존중감	3.092	.758	3.830	.999	-3.046**	3.161	.729	3.046	.959	.677
가정적 자아존중감	3.632	.691	4.145	.693	-4.170**	3.666	.987	3.812	.791	-1.208
학업적 자아존중감	3.120	.483	2.780	.607	2.201*	3.033	.583	2.857	.758	.925
전 체	3.290	.531	3.747	.608	-4.574**	3.355	.605	3.317	.598	.543

*p<.05, **p<.01, ***p<.001

<표 8> 또래관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사

(N=26)

변인	실험집단(n=13)		통제집단(n=13)		t
	M	SD	M	SD	
신뢰감	3.196	(.590)	3.126	(.637)	.287
존중감	3.396	(.480)	3.426	(.537)	-.154
전 체	3.296	(.515)	3.276	(.560)	.091

<표 9> 또래관계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 비교

(N=26)

변인	실험집단(n=13)				t	통제집단(n=13)				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신뢰감	3.196	.590	3.334	.552	-.835	3.126	.637	3.176	.532	-.455
존중감	3.396	.480	3.342	.501	.406	3.426	.537	3.188	.610	1.075
전 체	3.296	.515	3.338	.462	-.309	3.276	.560	3.182	.429	.621

3. 집단미술치료 과정의 회기별 내용 분석

1) 관계 형성 단계(1회-4회)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시간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로 어색해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였는데 연구자가 활동에 대한 시범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기존의 관련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 자신감과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각 활동에 대한 작품이 완성된 후 이야기나누기를 전개할 때 학년이 높은 아동들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연구자가 개별 아동 모두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 경청하였을 경우 칭찬을 해주었더니 점점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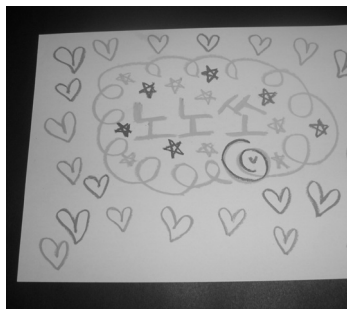
2) 자기-타인 인식 단계(5회-13회)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가족관계와 선생님의 포함하면서 학교에서의 생활과 친구 관계를 알아보고 친구를 대하

는 태도를 보기 위해 가족화와 학교생활화를 그리게 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술재료는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공하였다. 가족화와 같은 개별활동이나 종이 찢어 표현하기 활동과 같은 집단활동을 진행할 때 가급적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가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3) 문제해결-또래관계를 위한 단계(14-2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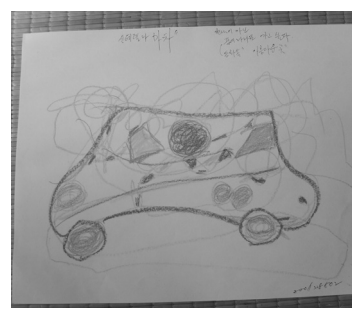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또래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전개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작품을 꾸미는 과정과 완성 후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집중시간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속에서 길어졌으며, 또래간의 갈등이나 말다툼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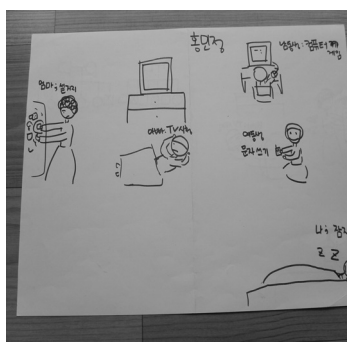
[그림 1] 별칭 짓기



[그림 2] 사포조각



[그림 3] 난화



[그림 4] 가족이야기



[그림 5] 학교생활화



[그림 6] 가장 슬펐던 순간, 마음이 아팠던 순간 (종이 찢어 표현하기)

4) 종결 단계(22-24회)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생활과 가족생활, 대인관계에서 달라진 점을 우리집 만들기와 소망 나무꾸미기 작업을 통해 완성한 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을 전시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회상과 생각, 활동의 끝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아동들이 함께 나누었다. 아동들은

여러 작품 활동을 해보는 과정도 즐거워하였지만 이후 정성을 기울여 활동한 작품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꾸미고 전시하면서 작품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하였다. 전시회 당일 가족이나 인근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또래들을 초대하여 함께 작품을 나누고 발표하면서 서로 즐거워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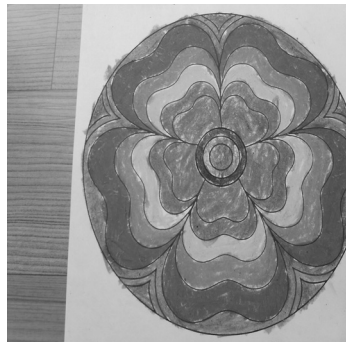
[그림 7]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림 8] 도자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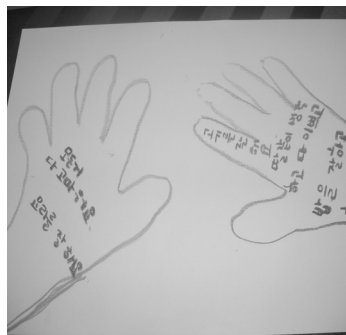
[그림 9] 풍경구성법



[그림 10] 만다라 그리기



[그림 11] 비밀상자



[그림 12] 손, 발바닥 본뜨기



[그림 13] 주고받고 싶은 선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언어적 표현이 서툴고 어려워하는 아동에게 유용한 방법으로(신지혜, 김귀복, 2009) 미술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지지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고 집단경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를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매주 60분씩 총 24회에 걸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초등학교 2, 3, 4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영역 중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반면 학업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과 사후의 차이는 자아존중감 전체 뿐 아니라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참여 이후에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는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김정남(2008), 김효지(2010), 정여주(2007), Kramer(1993)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 개인이 형성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자신에 관한 평가(Coopersmith, 1967)인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형성되고 발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학교교육에서 자아존중감을 함양할 기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들이 가진 일부를 대행해주는 지지적,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서영숙, 김진숙,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활동을 방과후 아동센터에서 집단경험활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임수양, 2001)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김화정(2002)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적극적인 집단경험학습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아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게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기표현을 용이하게 도왔으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였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이나 대인관계의 위축, 자기통제의 어려움, 부적응 등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가운데(이지혜, 2003; 조은정, 2011)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아동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느낌, 태도를 검토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아동의 긍정적인 성격과 태도를 확신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하여 갖는 자아상이라 할 수 있는 학업적 자아존중감이 감소된 것은 본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수업내용이나 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추후 이와 연관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령기 아동이 근면성과 성취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유능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이러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사후 간 차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나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 또래관계의 향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의 또래관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김경남, 2008; 유경순, 2008; 이경은, 2005). 결과적으로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만족을 타인에 대한 너그움과 존중으로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또래집단 속에서 서로 간에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느낀 여러 경험 속에서 타인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도하였으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이다. 기존 연구와 상반된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및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차후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아동자신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타인과 관계 맺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비록 양적인 연구결과에서는 또래관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행동이나 언어사용, 감정표출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예로 활동 초기단계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나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게는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소외시키기는 행동이 표출되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보였고, 미술재료를 공유하기 보다는 독점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차츰 또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지속적으로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고, 재료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다리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학년 아동이 저학년 아동에게 활동을 이끌면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배려하는 행동을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 자신은 물론 남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우며,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결손가정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 학교공부를 보충하는 교육활동에 치중되어(김효지, 2010),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자기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열등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사회성, 지배성, 안정성 등이 낮고, 이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긴장감과 과도한 불안감, 또래관계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임영희,

2002), 아동의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이 24회기라는 한정된 회기에 진행되어, 그 효과가 단기적 효과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관찰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관계 변화에는 별 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치료법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표집수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은 사전-사후 검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차후 더 많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기 위한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양적 및 사례분석, 작품분석, 심층면담자료 등을 포함한 질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프로그램 단계별로 상담목표를 세워 집단상담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후속연구에서 추가한다면 아동의 내면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관계 검사도구는 아동자신이 또래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차후 또래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또래관계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미술치료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그들의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부적응 행동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일반아동에게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이 필

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참 고 문 헌

- 강윤정. (1999). 결손가정아동의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효정. (2002).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이혼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남. (2008). 소조활동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2).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특성 및 가정환경과 아동방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 (199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적응요인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 (2005).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정. (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지.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우, 이지현. (199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미술치료연구**, 6(1), 57-72.
- 말치오디. (2010). 김동연 · 이재연 · 홍은주 역. **아동미술 심리이해**. 서울: 학지사.
- 문지연. (2005).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이용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숙. (2006). 집단미술치료가 복지시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욱. (2003).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김진숙. (2004). 방과후 아동지도의 연구동향.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1(1), 2-37.
- 송도영. (2008). 교실원에 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혜, 김귀복. (2009). 미술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41-351.
- 양강순. (2009). 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 (1998).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순. (2008).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언어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2005).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매. (200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0(1), 357-372.
- 이수정. (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2007).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전숙영. (2001). 아동의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5-32.
- 이종문. (1999). 심리극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 (2006). 협동작업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영

- 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2010).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양. (2001).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학문사.
- 임영희. (2002).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2008). 한부모 가족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 발달 : 동거 부모와 주 양육자의 영향. **아동학회지**, **29**(3), 207-222.
- 정여주. (2007).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4), 97-111.
- 정익현. (2001).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금란. (2003).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11). 집단놀이치료가 한부모가정 아동의 또래 지지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규남. (2002).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권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신현. (2009). 협동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경. (2008).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미술치료학회. (2004). **미술치료연구총서**, 1-5, 한국미술치료학회.
- 한선화. (1997). Satir 가족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녀-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홍옥순. (1984). **집단 상담을 통한 지도가 학급내의 인간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 현장교육의 이론과 실제 II**. 서울: 갑을출판사.
- 홍유희. (2008).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Kramer, E. (1993). *Art as therapy with children(2nd rd.)*. Chicago: Maganolia Street Publishers.
- Richardson, R. B., & Rayder, N. F. (1987). *Self esteem research guides: School achievement and self-esteem*. California: S. N.
- Rubin, J. A. (2005). *Child art therapy*. N. Y: John Wiley & Sons.
- Walker, E. M. (1991). *Changing self-esteem: The impact of self-esteem changes on at-risk student achievement*. Newark Board of Education, N. J. Office of Research, Evaluation and Testing.
- Wasserman, T. R. (1988). *Improving first grade students' affective behavior through implementing a self-esteem program*. Dissertations, M. S. Practicum, Nova University.

| 접수일 : 2011. 08. 29.
 | 수정완료일 : 2011. 10. 03.
 | 게재확정일 : 2011. 10. 07.